



긍정의 YES, 디자이너 노지은입니다.

NO JI EUN

Date of Birth 1998 . 2 . 10
Nationality Korea
Phone 010 7111 9819
e-mail bysopu@naver.com

Experience

2018.12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의정부센터 (2년)
2019.08 파라다이스씨에이지 산학실습 (1개월)

Awarded

2019.06
커뮤니케이션디자인국제공모전 뉴미디어 입선
2019.11
졸업작품 뉴미디어 "Shooting Star" 최우수작

Education

2016.02 경민IT고등학교 디지털미디어과 졸업
2020.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License

MS office Master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2급	대한상공회의소
정보처리기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전산세무회계 2급	한국세무사

Skills



예쁘기만 한 디자인? NO!

고등학교 문화탐방 동아리 활동으로 서울역에서 전시했던 '당신도 꽃입니다'라는 전시를 통해 디자인과 문화 예술이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술가이며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뜻을 내포하여 저에게 좋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디자인을 할 때 단순히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보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하며 "마음을 담는 디자인을 하자!"라는 가치관을 성립했습니다.

함께하는 소통, Yes or No

고등학교에 다니며 쾌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반장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 중 12월에 성가 경연 대회를 반장으로서 친구들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다수결로 소수 친구들에게 의견을 강요하게 되어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소수 의견을 듣고 많은 대화를 통해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혼자라면 절대 생각하지 못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함께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협동심도 함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며 팀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소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답해주세요! Yes or Yes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및 디자인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디자인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중 저는 환경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업 이미지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지구 환경에 대해 쓰레기 배출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 디자인을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게 화분으로 심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기부할 수 있는 제품을 한다면 좀 더 세계적으로 라인프렌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